

韓國産 과잎벌레(딱정벌레目: 잎벌레科: 긴더듬이잎벌레亞科) 未成熟 段階에 관한 研究

이종은, 박진영

안동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

긴더듬이잎벌레亞科는 잎벌레科 중에서도 농업해충을 가장 많이 포함한 분류군이며, 긴더듬이잎벌레屬(*Galeruca*)은 세계적으로 28종이 알려져 있으며, 우리나라에는 부추屬(*Allium*)의 심각한 해충인 *Galeruca extensa*(과잎벌레)를 비롯한 *G. tanacetii incisicollis*(민줄긴더듬이잎벌레), *G. vicina*(한서잎벌레), *G. heydeni*(하이덴잎벌레), *G. reichardti*(야코브손잎벌레), *G. weisei*(긴더듬이잎벌레), *G. daurica*(다우리아잎벌레)의 7종이 서식하고 있다.

과잎벌레의 幼蟲은 몸은 짧고 굵은 원통형이며, 검은색이고, 등에 반점이 들출되어 있으며, 강모가 밀생되어 있고, labrum의 가장자리의 가운데가 함입되어 있으며, postmentum은 작은돌기들이 산재되어 있다. 전흉배판은 D-DL형이며, 복부에 Dm이 없고, 큰턱에는 penicillus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다. 발육기간은 평균 28일이며, 2회의 탈피를 거쳐 終齡이 된 후 땅표면에서 고치를 짓고, 그 안에서 용화된다.

蛹은 오렌지색을 띠며, 평균 10일 후 우화한다. 연 1회 발생하며, 成蟲은 5월 하순부터 10월 하순까지 관찰 할 수 있으며, 9월 중순부터 산란한다. 卵은 기주식물 기부근처에 卵塊를 만든다. 卵으로 월동하여, 이듬해 4월 중순에 부화한 후, 기주식물인 부추屬(*Allium*) 잎을 가해하기 시작한다. 幼蟲과 成蟲은 모두 일시적 군집생활을 한 후 흩어져서 생활한다. 幼蟲과 成蟲은 천적이 접근하면 땅으로 떨어지거나 입에서 방어물질을 토해내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.